신관섭/ 종합건축사사무소이웨스부회장, 듀폰코리아상임고문
by Sin Kwan-seob, KIRA

건축물이름에대한단상

Fragmentary Thought on the names of Buildings

이름의사전적의미는‘ 다른것과구별하기위하여삼라만상하나하나에붙이는일컬음 ’또는‘ 일반적으로유형, 무형사물의개념을나타내는것으로, 각사물의존재가치를드러내고각사물을구별하는칭호 ’라정의되어있다.

우선사람의이름에대해서살펴보기로하자. 사람에게이름은단순한호칭의수단이아니라명예와인격을포괄하는개념이다. 우리나라에서사용하는사람이름의종류로는태어나면서부터부르는아명이외에별명, 자, 호, 시호, 택호, 당호, 법명, 세례명, 예명, 필명등그수도헤아릴수없이많다. 그중대표적인이름을살펴보면, 아명은태어나면서부터집안어른이지어주는이름으로역신의시기를물리치고장수하라는믿음에서개똥이, 쇠똥이, 돌쇠등천하게지어애칭으로불렸다. 그후세월이흘러스무살이되면성인식인관례를치르고자를지어친지, 친구들이평소허물없이부를때사용하였다. 그러다중년이지나학문과덕행이뛰어나널리알려지게되면존경을표시하는의미로친구들이호를지어주는데이때부터는자는불리지않게되었다. 필자의경우요즘등산을좋아하여매주한두번씩북한산에오르는데, 등산친구들이필자의성격과취미를고려하여호를평산이라지어불러주고있다. 호로불릴때의기분은본명으로불릴때와는또다른느낌인지라한평생여러이름을거치며살아간우리조상의풍류를조금이나마알수있을것같다.

사람의이름처럼우주의삼라만상모두가이름을가진것은아니지만어떤사물에이름을붙일때는사물이속하여있는사회와 문화를 바탕으로 지어지기마련이다. 따라서 그속에는작명자의 세계관이 담겨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나아가공공의공감이깊이배어있어야한다.

하물며사람의삶과늘함께하고사람의생각과행동에큰영향을미치는인간의보금자리인건축물이야말로그에딱맞는이름을지어야한다고필자는생각한다. 그러나우리나라수많은건축물의이름은건축물의용도와성격그리고주변의환경과동떨어진경우가너무많아보고듣는이를어리둥절하게한다. 일례로도심의비좁은구석에 00가든이있는가하면, 복잡한거리에 00스퀘어가들어서기도하고, 짜리몽땅한건물이 00타워가되기도한다. 더욱이이해하기어려운것은산중에 00리버사이드가들어서며강변에 00힐사이드가지어지고있는실정이다. 뿐만아니라주차시설도갖춰져있지않고서도자동차 여행자의 숙박소인 모텔이란이름을버젓이사용하고있으며, 주택가의 빌라이며맨션이란이름도원래의의미를상실한채끊임없이사용되고있는실정이다.

사물 이름은 그 사회와 문화를 바탕으로 지어지기 마련,
따라서 작명자의 세계관과 공공의 공감이 깊이 배어져 있어,
그러나 사람과 함께하고 생각, 행동에 큰 영향 주는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용도, 성격, 환경과 동떨어진 경우가 너무 많아,
흥인지문, 돈의문 등 심오한 이름에 외국인들마저 경탄
이름의 사회적 의미와 가치를 되새길 때 우리 건축문화 더욱 빛날 것

경우야좀다르지만지적하고싶은게또있다. 삼일빌딩을예로들면이건물은건립당시에는국내에서제일높은빌딩이었는데삼일로입구에위치한다하여싱겁게도삼일빌딩이라이름지어졌고, 63빌딩또한건립당시국내최고층건물이었는데 63층이라는이유로개성없이 63빌딩으로명명되었다. 당시로는 63층의건물이대단하였겠지만 63층짜리빌딩이야다른 곳에더있을수있으며현재는 63층이상의건물이 즐비하지않은가. 국정 최고 책임자인대통령의집무처인 청와대의이름도그권위와위엄을나타내는다른좋은이름이있겠지만청기와로지붕을덮었다고그냥청와대로만불러지고있음을필자는아쉽게생각한다.

최근에는브랜드의중요성에공감하면서각아파트공급회사에서는자체고유브랜드를가지고홍보에열을올리고있는데, 그브랜드명역시발음은우아하고예쁜것같지만그뜻을새겨보면이미지에걸맞지않은억지가많으며국적불명의신조어또한부지기수이다. 너무나생소하고어려운이름이유행해서그런지시중에는우스갯소리로요즘며느리들은연로하신시어머니가찾아오기어렵게하느라외우기어려운국적불명의아파트이름을선호한다는이야기가나돌기까지한다.

아파트의브랜드나건물의이름은아파트공급회사나건축주가짓는경우가대부분이겠지만우리건축사들도이에자유로울수없다고생각한다. 아름답고사용하기에편리하고또한튼튼한건축물의설계에이어이에걸맞은이름이지어지도록적극조언할수있어야한다. 완공된건축물에설계자의이름이빠질수없듯이건축물의이름역시건축물과불가분의관계이기때문이다.

우리의선조는이름이그 사람의 이미지를 형성하고 운명을 좌우한다고 보아 운명을성명학으로 다루기도 하였고, 이름에서세대수를표시하는항렬자를가문마다따로 정하고 역학사상에 기초하여음양오행의순환 이치에 따라 순서대로 돌려가며 쓰기도하였으며, 건축물의이름또한사람의이름못지않게심사숙고하여작명하였다. 오대궁궐인경복궁, 경희궁, 덕수궁, 창덕궁, 창경궁의기품있는이름이며궁궐내의건물의이름을예를들면, 경복궁내의정전인근정전, 편전인사정전, 만춘전, 천추전, 침전인강령전, 교태전, 누각인경회루등모두빼어난이름들로어느하나흠잡을데가없다.

또한서울시가지의건물에도인, 의, 예, 지, 신, 유교사상에기초하여명명된흥인지문, 돈의문, 숭례문, 홍지문, 보신각의심오한이름에외국인들마저 경탄을금치 못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우리나라건축물이름을 보아 하면이런 조상의이름에대한 지혜와 깊은 고민을찾아볼수 없어안타깝다. 이름을 짓는데너무 형식적이고 틀에 얽매일필요는없겠지만그 이름이갖는 사회적 의미와가치를 다시한번새겨볼때우리의건축문화가더욱빛날수있으리라확신한다.